

보도시점 2024. 12. 18.(수) 11:00
12. 19.(목) 조간

배포 2024. 12. 18.(수) 09:00

지역민들이 직접 만드는 농촌관광 콘텐츠!

-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 2024년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지원 대상 4개소 성과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2월 18일,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의 진행 상황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2025년 사업 추진 전략을 논의하는 ‘2024년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은 지자체가 지역의 농촌관광 운영 주체들과 연계·협력하고, 특색있는 농촌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여행상품 기획과 원가 산정에 대한 전문가 강의를 통해 상품별 마케팅 전략을 공유했고, 이어진 발표에서는 2년차 사업을 진행 중인 세종, 강릉, 음성, 해남의 사례가 소개되며 지역 주민 주도의 창의적인 관광콘텐츠가 농촌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 추진 사례로 소개된 ▲세종특별자치시는 주민 협의체 기반의 운영 법인을 설립하여 체류형 프로그램과 지역 자원을 결합한 농촌관광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있다. ▲강원 강릉시는 '숨쉬러 강릉' 프로젝트를 통해 시즌 특화 상품을 운영하며 여행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강릉역 전광판 광고와 지역 축제 부스 참여 등 대중적인 홍보 전략을 통해 농촌관광의 접근성을 강화하고, 감성적인 마케팅으로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은 “니랑 나랑 농촌에서 놀자”라는 의미의 ‘니나농’이라는 지역단위 농촌관광 브랜드를 개발하고 산딸기 수확, 숲 테라피, 불멍과 같은 체험을 통해 자연 속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은 ‘땅끝마실 프로젝트’를 통해 김장 체험, 지역 명소 방문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참여 경영체 발굴·교육, 서비스 품질관리, 운영 매뉴얼 구축을 통해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월 2일에는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2025년도 신규 사업자로 충남 부여, 전북 남원, 전남 보성 등 시·군 3개소가 선정되었다. 이로써 내년에도 지역별 특색있는 체류형 농촌관광 모델 개발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고은 농촌경제과장은 “세종과 강릉 등을 비롯한 여러 지역의 성공 사례는 주민 주도의 농촌관광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 수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향후 더 많은 지역이 이러한 관광 모델을 참고해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4년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성과공유회 계획
 2.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개요
 3. 성과공유회 개최 사진(별송)

담당 부서	농촌정책국 농촌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고은 (044-201-1581)
		담당자	사무관	김한승 (044-201-1592)



□ 목 적

- '24년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의 추진현황 및 우수사례 공유, 전문가 강의 및 '25년도 사업추진요령 및 보조금 집행 가이드라인 교육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 및 성과제고

□ 일 시 : `24.12.18(수) 13:00~16:30**□ 장 소 : 세종시티 오송호텔 대회의실**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로 178

□ 참석자 : 60명 내외

- 지 자 체 : 사업대상(1-3년차 및 신규) 지자체 담당자
 - * 기초지자체 담당자 1명 필수 참석, 광역지자체 담당자는 선택 참석
 - * 세종, 경기(연천), 강원(강릉, 홍천), 충북(음성), 충남(부여), 전북(부안, 남원), 전남(해남, 보성), 경북(상주), 경남(통영), 제주(제주)
- 운영주체 :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담당자 지역별 각 2명
 - 1년차(경남 통영, 제주 제주)
 - 2년차(세종, 강원 강릉, 충북 음성, 전남 해남)
 - 3년차(경기 연천, 강원 홍천, 전북 부안, 경북 상주)
 - '25년 신규(충남 부여, 전북 남원, 전남 보성)
- 전문가 5명

□ 주요내용

- (전문가특강) 여행상품 기획 및 원가산정 전략
 - 내용 : 상품별/타겟별 마케팅 전략, 상품기획 및 상품가격 책정방법등
- (사례발표) 2년차 사업추진 공유 및 사례발표(세종, 강릉, 음성, 해남)
- (최종보고) 지자체별 전담전문가 현장자문 결과 및 제언
- (교육) 사업추진 요령 및 사업비 집행 가이드라인 교육

□ 사업개요

- (사업목적) 시·군이 주체가 되어 지역 내 농촌자원과 관광자원을 연계한 체험·관광·식사·숙박이 어우러진 여행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사업내용) 지역 체류형 여행 상품개발·운영, 지역 내 경영체 조직화 및 네트워크 정비·구축,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 (사업기간) '17년~계속
- (시행주체) 시장·군수
- (지원조건) 지자체경상보조(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단가) 개소당 최대 2년간, 총사업비 240백만원 지원('25년부터 변경)
* '24년까지는 지자체당 3년간 360백만원 지원

□ 사업추진 현황('17~'24까지) : 총 26개소 선정

연도	신규지구 선정규모	선정지역	선정 시기	현황
2017	5개소	강원(양구), 전북(남원·순창), 전남(강진), 경북(고령)	'17.6	완료('20)
2018	1개소	경북(문경)	'18.5	완료('21)
2019	4개소	충북(충주), 전북(완주), 경남(거창), 제주(서귀포)	'19.4	완료('22)
2020	5개소	충북(제천), 충남(서천), 전북(김제), 전남(곡성), 경북(의성)	'20.4	완료('23)
2021	1개소	강원(원주)	'21.4	3년차
2022	4개소	경기(연천), 강원(홍천), 전북(부안), 경북(상주)	'21.10	3년차
2023	4개소	세종, 강원(강릉), 충북(음성), 전남(해남)	'22.9	2년차
2024	2개소	경남(통영), 제주(제주시)	'23.10	1년차
2025	2개소	충남(부여), 전북(남원), 전남(보성)	'23.12	신규